

우리茶 소중함 일깨우는 쉼터



초의선사 탄생지 성역화에 매진해 온 초의학술재단 이사장 용운 스님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한참을 달려 가야 만날 수 있는 전남 무안의 초의선사 탄생지. 그곳에는 초의선사 탄생지 성역화 작업에 매진해 온 용운 스님(초의학술재단 이사장·사진)이 있다. 1970년대부터 우리 차문화의 소중함을 역설하며 차 잡지와 서적 등을 펴내고 대중 강의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 온 스님은, 10여 년 전부터 외부활동을 자제한 채 초의선사 탄생지를 가꾸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최근 100권 기획의 <한국차문화자료집> 발간과 초의선원·초의미술관 건립, 초의선사 탄생문화제 준비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용운 스님을 1월 15일 만났다. 이날은 스님의 유일한 대외활동이라 할 수 있는 '차문화 강좌'에서는 스님들의 시문집과 비문(碑文), 유품 등에 나타나는 자료, 다구와 다예 등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어렵고 불필요한 자료로 보일지 모르지만, 차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자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집을 통해 더 많은 차문화 연구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귓등을 때린다. 요즘 한창 교육관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초의선사 탄생지 성역화 작업으로 옮겨갔다.

스님은 무안군과 함께 1997년 초의선사 생가터를 복원한 후 기념관, 명선관, 다성사 등을 건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원공을 앞두고 있는 초의선원.

을 해 왔다. 생가터가 위치한 삼향면 왕산리 일대 6만여 평을 '초의문화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무안군은 최근 7년에 걸쳐 '1단계 초의선사 현장사업'을 마무리한 후 '제2단계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착수했다. 그 첫 결과물로 현재 교육관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으며, 올해 안으로 초의미술관 건립도 시작된다.

"5월까지 교육관과 요사채 등이 완공되면 주말마다 다도와 현대의식, 참선 등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초의선사 현대의식이 열리고 행다법과 배례법 강의, 차음식 만들기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한편, 시민선방 형태의 '초의선원'도 문을 연다. 템플스테이 형식으로 탄생지에 머물며 참선과 다도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완공을 앞두고 있는 초의선원은 주춧돌 하나, 기둥 하나에도 초의 스님의 사상과 생애를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중다송>의 내용을 세긴 글자문과 안찰림 기둥 등의 독특한 공법은 이미 건축특허까지 받았습니다."



한국차문화자료집 1~5권

에게 차와 수행을 통한 휴식을 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관과 문화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사단법인 초의학술문화원을 초의학술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문화제 집행과 성역화작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운 스님. 스님은 "초의선사 탄생지 성역화 작업은 혼자만의 역량이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회원들과 무안군, 정부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종교를 떠나 우리나라 차문화를 중흥시킨 초의선사의 사상과 고고한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초의선사 현장사업의 방향타이자 차문화 자료 구축의 디딤돌이 될 용운 스님의 행보에 많은 차인들의 기대와 공감이 머무는 이유다.

글·사건/무안=여수형 기자

대구 공모전 등 행사 다채 티월드 페스티벌 6월 21~25일 코엑스

국내 차문화·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제4회 티월드페스티벌'이 6월 21~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열린다.

특히 올해는 '2006 독일 월드컵' 기간과 맞물려 개최된다는 점에 착안해 세계 32개국의 차문화를 소개하는 '티 월드컵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각 나라의 대표적인 차를 전시함으로써 다양한 차문화를 알리고, 축구를 매개로 젊은 층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능력 있는 공예작가를 발굴하고 실용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차도구 개발을 위한 '제1회 국제다구디자인공모전'도 개최한다. '쓰임의 다구'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에는 도자기, 목공예품, 금속공예품 등 찾자리에 필요한 차도구라면 어떤 작품이든 응모 가능하다. 홈페이지(www.teanews.com)에서 출품원서를 다운받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 밖에도 차 관련 단체와 업체의 전시, '우리차 마시기' 캠페인 전개, 학술심포지엄, 차문화특강, 세계명차전시, 우리차 패션쇼 등의 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티월드위원회(위원장 김정순)는 "지난해 130여 업체, 200여 부스가 참가한데 이어 올해는 150여 업체 230부스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다양한 볼거리와 참여행사를 통해 젊은 층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2)6000-8000

100권 기획 '차문화자료집' 발간 위해 진력 5월경 교육관 열고 주말 프로그램 운영 계획 복원 이상의 현대인들 위한 체험공간 될 것

가 열리는 날로, 한 달에 한 번 강의를 듣기 위해 달려오는 서울·경기지역 회원들을 만나는 날이다. 회원들을 맞이하는 스님의 반가운 얼굴 한편으로 파근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

"지난 30여 년간 수집한 차문화 관련 자료를 엮어 펴내는 <한국차문화자료집> 원고 작업 때문에 하루 종일 자료문고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분류하고 입력하느라 매일 8-9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스님이 수집한 차 관련 자료를 망라하게 될 자료집은 1차 50권, 2차 50권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말 1-5권이 나온 데 이어 이달 중으로 6-10권, 5월에 11-16권이 출간되는 등, 4-5년 안으로 100권을 완간한다는 계획이다.

1차분 50권에는 <삼국유사> <삼국사기> <고려사> 등의 사서(史書)를 비롯해 문인·사대부들의 시문집에 나타나는 차 관련 문헌이 소개된다. 2차분 자료집

을 해 왔다. 생가터가 위치한 삼향면 왕산리 일대 6만여 평을 '초의문화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무안군은 최근 7년에 걸쳐 '1단계 초의선사 현장사업'을 마무리한 후 '제2단계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착수했다. 그 첫 결과물로 현재 교육관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으며, 올해 안으로 초의미술관 건립도 시작된다.

"5월까지 교육관과 요사채 등이 완공되면 주말마다 다도와 현대의식, 참선 등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초의선사 현대의식이 열리고 행다법과 배례법 강의, 차음식 만들기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한편, 시민선방 형태의 '초의선원'도 문을 연다. 템플스테이 형식으로 탄생지에 머물며 참선과 다도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완공을 앞두고 있는 초의선원은 주춧

짱화 교수의 보이차 이야기



3. 보이차의 명성

보이차를 한번쯤 접해본 사람이면 너무나 할 것 없이 보이차에 대해 '한 말씀' 할 정도로 보이차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난다. 이중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이 바로 '보이차 브랜드의 형성'이다.

항간에서는 "예로부터 중국에서 가난한 변방소수민족들이 마시던 조잡한 차를 홍콩, 타이완 장사꾼들이 유행하게 만든 것이 보이차"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시류에 따라 상인들의 ' 띄우기 작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20세기 상업주의에 의해 탄생된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보이차'라는 것이다.

상품의 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자의 연구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하나는 학자의 선행연구 성과를 통해 상품의 시장 활성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에서 이미

수행 이의 많은 식자들이 사행(私行)으로 중국에 건너가 외국의 제도나 문물에 대한 견문을 넓혔다.

이러한 기록은 현재 알려진 것만 해도 100여 종이 넘는다. 사행에 참가하여 기록을 남긴 사람들은 당대의 지배층 식자들로서 그들이 만나고 보았던 연경(燕京, 지금의 베이징)의 실상은 청나라의 지배계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에 그들의 기록은 곧 청나라당시의 풍속도이자 현실기록이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연경에는 보이차가 있었다. <연원직지(燕巖直指)>와 <계산기정(蕙山紀程)>에서 모두 보이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청대 보이차 문화를 보여주는 <연원직지>

나, 보다 상세하게 소개한 것이 <연원직지>다. '차의 품목의 수는 다양하다.

그들은 황차(黃茶)와 청차(靑茶)를 황차 이용하며, 그 다음은 향관차(香片茶)이다. 그러나 가장 인기하게 여긴 것이 보이차

청, 상류층 애용했음이 '연행록'에 글 남아 '도차변증설'에선 보이차의 인기·명성 기술

유행되고 있는 상품을 후속작업을 통해 연구하는 것이다. 보이차 연구는 후자에 속한다.

뒤늦게 출발한 학자들의 연구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차의 팽창속도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주소이다. 물론 필자의 연구도 그 중의 하나다.

그럼 지금까지 전해오는 것처럼 보이차는 진정 별 볼일 없는 차인가? 역사적으로 중국 상류층으로부터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지금의 필자의 답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지금의 답'이라는 의미는 몇 개월 전만해도 필자의 답이 '그렇다'라는 오류를 범했다는 얘기이자, 그러한 잘못에 대한 일종의 고백이다.

필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보이차는 적어도 청나라 초기부터 중국 집권층, 상류층들이 마셨던 차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기록이 발견된 최초의 글은 조선과 청나라간의 정치·외교적인 의미를 지니는 기록문헌인 <연행록(燕行錄)>이다.

고려 때부터 외교 사신들의 임무

다. 다만 가짜가 많다는 것이다"라는 기술은 당시의 수도인 연경에서도 '짜퉁' 보이차가 등장할 만큼 수요가 많았다는 얘기다.

19세기 지식인 이규경(1788~1856)이 쓴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叢稿)> '도차변증설(茶葉辨證說)'에서는 보이차의 인기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오늘날 연도(燕都)에서는 차의 품목이 많고 성행하는데, 이 중 보이차가 제일요, 백호차(白毫茶)가 둘째, 청차가 셋째, 황차가 넷째"라고 했다.

청나라 왕실뿐만 아니라 조선의 왕실에서도 보이차를 마셨다는 기록이 발견된다. 정조의 둘째 사위이던 한 흥원(韓興源)은 "대나무 차통에서 고운 흰 비단을 풀어보니 둥근 달과 같은 보이차가 보인다" 등의 시구(詩句)를 남겼다.

이러한 기록들은 보이차가 21세기 기뿐만 아니라 17세기 청나라 때부터 이미 중국의 최고 명차로서 권력의 중심에 서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 ■한서대학교

예약 주문 신청 문의
전화 : 02)722-7777 / 팩스 : 02)722-7845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37번지
월간 다도 편집부
* 정기구독자들에게는 할인해 드립니다.

茶와 禪의 깊은 인연을 극명하게 풀이한
차茶와 선禪
그리고 화두話頭

발간예정

곧 발간됩니다

차茶와 선禪
그리고 화두話頭
상권
임재현 스님

차茶와 선禪
그리고 화두話頭
하권
임재현 스님

불교평론
Buddhist Review

현대불교가 발행하는 계간 <불교평론>
2005년 겨울호(통권 25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향우석 사태를 보는 불교의 눈 (조성택)을 비롯한 흥미있는 글들이 담겨 있습니다.

<불교평론>을 정기구독하시면 창간호부터 23호까지의 모든 내용을 고스란히 담은 '불교평론' 합본 O를 드립니다.

특집 '웰빙 시대의 잘 죽기'
웰빙 시대에 왜 웰다잉을 말하는가 (오전택)
붓다의 죽음 (안양규)
선사들의 죽음과 열반 (김영욱)
부활, '웰다잉'의 한 해석 (이찬수)
죽음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생각 (강신표)
근사체형(近死體驗)이란 무엇인가? (최준식)

논단
울장은 금서인가 (마성스님)
백학명의 불교개혁과 선농불교 (김광석)
일본 불교사회복지의 발전과 한국불교에의 시사 (박광준)
공안 언어의 사회적 담론의 가능성에 대한 상념 (박진영)
조선전기 관세음보살의 응신묘법의 도상과 그 창조적 재현 (강소연)
탁남한의 프렘빌리지 선수행 고찰 (김진용)

자동이체 정기구독 방법
• <불교평론> 고객센터부(02-2004-8211~2)로 전화 주시고 상담원에게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시면 자동이체 정기구독자로 등록됩니다.
• 구독료는 매년 2월, 5월, 8월, 11월 말일 1만원씩 연간 4만원이 이체됩니다.

계좌 입금 정기구독 방법
• 1년을 구독단위로 선납 4만원을 계좌 입금하시는 방법
• 계좌 은행 : 국민은행 : 038-25-0008-365(현대불교신문사)
농협 : 100126-55-002417(현대불교신문사)
(입금후 전화확인 하셔야 합니다)

■ 불교평론 광고 신청 접수 : 전화 02)2004-8214, 010-7339-8688, 팩스 02)737-0696